

# 외국인 학생이 한국 대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

일본학과 홍지우

## [ 목차 ]

- I. 서론
- II. 한국 대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 1. 외국인 학생 현황
  - 2. 외국인 학생 중도탈락 현황
- III.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서 겪는 문제점
  - 1. 의사소통의 어려움
  - 2. 학술적 글쓰기의 어려움
  - 3. 그 외의 어려움
- IV.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
  - 1.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 진행 방안
  - 2. 대학 내 글쓰기 센터 운영 방안
  - 3. 대학교, 교수, 한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의 노력
- V. 결론

## I. 서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은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 개개인의 문화 교류 측면에 있어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외국인 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대학 강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학생 개인의 학업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업 지연, 팀 활동 시 한국인 학생의 과제 부담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K-CARD 출결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몰라 몇 주 동안 결석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이 부족하며, 옆에서 유학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교류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 대학교에서 학

습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외국인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교수, 학생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 대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 1. 외국인 학생 현황

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1. 4. 1기준 집계)

1) 연도별 유학생수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그래프 1><sup>1)</sup>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대학 외국인 학생은 152,281명이다. 코로나로 인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외국 인적자원의 국내유입 촉진을 위해 2004년 11월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sup>2)</sup> 당시의 목표는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다.<sup>3)</sup> 지난 2012년에는 2020년까지 유학생 수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2015년에 그 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했다.<sup>4)</sup> 계획만큼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유학생의 질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한국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2021년 대입 정원은 47만 2496명인데 비해 대학 입학자원은 43만 명으로 미충원 결원이 약 4만 명이다.<sup>6)</sup> 2040년에는 대학 입학자원이 28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어 결국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up>7)</sup>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1) 교육부(2021.12.20), 「2021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90123> (2022.11.21.)
- 2) 김선태(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외국인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쪽. <https://www.krivet.re.kr:8443/repository/handle/201303/2441> (2022.11.30.)
- 3) 위의 글, 5쪽.
- 4) 이대혁(2015.07.07.), 「교육부 “유학생 20만 유치” 목표 잡았지만...」,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7072090421475> (2022.11.30.)
- 5) 강정(2022),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인 유학생의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13쪽.
- 6) 이명아(2022.01.19.), 「20년 뒤 “수도권대·지방국립대만 생존”... 입학자원 43만명에서 28만명으로 급감」, 『대학지성 In&Out』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 (2022.11.30.)
- 7) 위의 기사.

교육부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지표에는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중도탈락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인증제는 학위과정과 어학 연수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국민대학교는 두 과정 모두 교육 국제화 역량을 인증받았다.<sup>8)</sup>

## 2. 외국인 학생 중도탈락 비율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각 학교별 외국학생 중도탈락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상위권의 학교들을 보면, 서울대학교 0.8%, 연세대학교 1.7%, 고려대학교 2.3% 등으로 나타난다. 국민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중도탈락률은 4.2%로 나타났다.<sup>9)</sup> 한편, 지방권 대학교 중 일부는 50% 이상의 중도탈락률을 보이기도 한다.<sup>10)</sup>

외국인 학생의 중도탈락 이유는 개인적 요인과 대학기관 수준의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의 적응과 관련하여 문화적인 부분,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 학습적인 부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이는 한국에서의 유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기관 수준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장학금 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가 마련되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소속 대학의 학위에 대한 가치에 의구심을 갖고, 한국어 습득과 해외 경험에 더 의미를 두어 학업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유학을 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 Ⅲ.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 1. 의사소통의 문제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교수 혹은 다른 한국인 학생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외국인 학생이 입학 당시 어느 정도의 한국어 수준을 지녔는지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교들은 외국인 선발을 위한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활용한다. TOPIK 대신 본교의 어학 코스 수료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지만,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TOPIK 3급은 1,200~1,500개 내외의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전 과목 교과서 분석을 대상으로 추출한 대학생의 학습용 기본 어휘 수는 19,337개에 달한다.<sup>12)</sup> 즉,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 들어올 때의 평균적인 한국어 수준이 대학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위해 입학 자격을 완화한 것과 관련

8)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https://www.studyinkorea.go.kr/ko/sub/college\\_info/certified\\_intro.do](https://www.studyinkorea.go.kr/ko/sub/college_info/certified_intro.do) (2022.11.23.)

9) 대학알리미, 「2022 외국학생 중도탈락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2022.11.23)

10) 가야대학교(김해) 55.7%, 순복음총회신학교 60%, 용인대학교 51.6%, 중앙승가대학교 83.3% 등이다.

11) 전재은(2016),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8(3), 글로벌교육연구학회, 5쪽.

12) 조민정·김성수(2017), 「자료와 전략을 고려한 읽기 수업 모형 탐색」, 『교양교육 연구』 11, 한국교양교육학회, 2쪽.

이 있다.<sup>13)</sup>

## 2. 학술적 글쓰기 문제

글쓰기는 인지적 사고와 언어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으로, 분석 능력과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sup>14)</sup>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러한 글쓰기 활동이 제 2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는 학생이 과제나 시험의 형태로 교수에게 학업 성취를 평가받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학술적 글쓰기의 어려움은 학업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업자존감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학업자존감의 하락은 외국인 학생의 중도탈락 사유로도 꼽힌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글쓰기 교육을 살펴보면, 작문이 아닌 문법 활용을 위한 간단한 문장 또는 대화 만들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쓰기 연습이 숙제 형태로 진행되어 교사가 문법과 어휘 등을 고쳐서 다시 돌려주는 데 그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능동적인 글쓰기를 연습할 기회가 적다.<sup>15)</sup> 기본적인 한국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교육과정이 1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속적이고 충분한 학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sup>16)</sup>

대학 내 글쓰기 센터의 문제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학 내 글쓰기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접근성이 낮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내국인 학생보다 학교 시설의 이용에 있어 소극적이며,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글쓰기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sup>17)</sup> 또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고, 글쓰기 센터의 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 3. 그 외의 어려움

외국인 학생들은 타국에서의 학업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응’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교수와 한국인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sup>18)</sup> 즉, 적응은 상호적인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상호과정은 초·중등 교육과정과는 달리 한정된 강의 시간에 따라 만남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 역시 한계점이다.<sup>19)</sup> 적응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 학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차별적 시선이다.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 문화에 대한 차별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들이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13) 이미정(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국어 수업 방안 연구- 토론과 연계를 통한 ‘읽기’수업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21, 3쪽.

14) 이수정(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 연구」, 『인문연구』 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7쪽.

15) 위의 논문, 12~13쪽.

16) 위의 논문, 3쪽.

17) 황성근(2018),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센터의 운영과 활용방안」, 『사고와 표현』 11(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12~13쪽.

18) 전예은 외 4명(2012), 「외국인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13쪽.

19) 위의 논문, 3쪽.

## IV. 외국인 학생이 한국 대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

### 1.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 진행 방안

외국인 학생이 지성을 실천하는 능동적 교육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차원이다. 대학의 교양 글쓰기 수업은 한국어교육기관의 글쓰기 수업과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문식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문적 문식성’을 목표로 하는 수업은 학습자가 대학 내에서 전공의 지식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언어 수행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이러한 수업의 모델로 ‘읽기-토론 연계 수업 방식’이 있다. 교수가 소주제문 찾는 방법을 간단히 강의하되, 배경지식이나 단어의 의미 같은 설명은 생략한다. 이후 학생들이 모둠을 만들어 토론하면서 각자의 배경지식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에 교수의 정리 강의를 통해 조원들과 토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sup>21)</sup> 이 방식은 읽기 활동이 개인에 한정되었을 때 학습 성과가 부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배경지식이 확장되는 과정은 독자의 적극적인 읽기 태도에 의해 좌우되고, 토론을 통해 이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sup>22)</sup>

### 2. 대학 내 글쓰기 센터 운영 방안

외국인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수가 일일이 외국인 학생들의 글을 첨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업과 글쓰기 센터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에게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글쓰기 센터의 피드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sup>23)</sup> 다소 강제성을 띠긴 하지만 글쓰기 센터 이용을 주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해 꾸준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담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글쓰기 센터는 진행하고 있는 특강 중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의 수를 늘려야 한다. 특강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은 대개 자국 학생들과만 어울리며 지내는 경향이 있다. 글쓰기 센터에 한국인 학생 튜터를 두면 외국인 학생은 글쓰기의 어려운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을뿐더러 내국인 학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내국인 학생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고, 이는 외국인 학생의 학업 중도포기를 방지할 수 있다.<sup>24)</sup> 튜터로 활동하는 한국인 학생도 외국인 학생 출신국가의 문화와 사고방식, 생활태도를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인 학생 튜터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쓰기 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학교 측의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20) 이미정(2017), 앞의 논문, 3쪽.

21) 위의 논문, 9쪽.

22) 위의 논문, 15쪽.

23) 황성근(2018), 앞의 논문, 12~13쪽.

24) 위의 논문, 19쪽.

### 3. 대학교, 교수, 한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의 노력

학교 측에서는 우선 외국인 학생 선발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입학 기준이 되는 TOPIK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sup>25)</sup>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대학교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TOPIK 3급은 대학 필수 어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의 어휘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TOPIK 급수를 높이거나, 본교의 어학 코스를 강화해 이를 입학 기준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계속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기초 교양처럼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에는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를 만들거나 외국어가 능통한 조교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학교 행사, 학교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1:1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과 단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외국인 신입생을 멘토로, 외국인 또는 한국인 재학생 선배를 멘토로 하여 학업, 대인관계, 대학생활 등을 도와주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sup>26)</sup>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공식적인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가 있거나 서로 기대하는 점이 비슷한 친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sup>27)</sup> 따라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기적 모임, 관심사 기반의 활동, 미션 수행 등 공동 목표 달성 방식 등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학생이더라도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 형성된 교우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고 유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좋은 수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경험한 긍정 사례는 주로 교수자가 외국인 학생을 배려하여 질문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격려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학생과 교수자 간 1:1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진정성 있게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sup>28)</sup>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는 학과의 담당 교수는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과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다양한 형태의 팀별 모임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업 전에 외국인 학생의 언어능력과 선수학습 정도 파악해 예습용 읽기자료 등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외국인 학생에게 편견을 갖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 학생과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프로젝트 과정 안내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시 함께 진행하고자 해야 하며, 외국인 학생을 믿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외국인 학생의 수업 참여 확대는 자국 학생의 시각을 넓힘으로써 높은 교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29)</sup> 교수와 학생 모두

25) 국민대학교 국제교류팀, 「부·모·학생 외국인특별전형 2023 모집요강」  
<https://iat.kookmin.ac.kr/admission/community/notice/516> (2022.11.23)

26) 이수정(2011), 앞의 논문, 21쪽.

27) 김재윤 외 6명(2021),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연구: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1, 한국HCI학회, 4쪽.

28) 최성호 외 2명(2018), 「좋은 수업에 대한 외국인학생들의 인식과 경험 분석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6(2),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쪽.

29) 위의 논문, 21쪽.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특정 국가 출신의 학생을 차별. 무시하는 태도와 표현을 삼가면 외국인 학생이 수업 중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발표나 토의 등 수업 중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개선해야 한다. 자국 학생들과만 소통하려 하지 말고, 한국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아리, 소모임 등에 참여하며 문화를 익히고 친구들을 만들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V. 결론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언어로부터 비롯된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교수나 학생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다.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더라도 학술적 글쓰기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식을 익히고 이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외국인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어려움은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이면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게 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외국인 학생의 적응은 외국인 학생 개인의 힘으로 이뤄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학교, 교수, 내국인 학생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신입생이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고,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친구 관계의 형성은 외국인 학생의 일상에서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안으로는 '읽기-토론 연계 수업 방식'을 꼽을 수 있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배경지식을 나누며 글을 읽어나가는 방식은 개개인의 학습 성과를 보완하고,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즉, 조별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이 외국인 학생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학술적 글쓰기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글쓰기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쓰기 센터의 이용에 소극적인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업과 글쓰기 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수업의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글쓰기 센터의 피드백을 거치도록 하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글을 확인하고 첨삭하기 때문에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쓰기 센터에 한국인 학생 튜터를 배치한다면 교우관계를 통해 글쓰기 이외에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제도적인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과 그들을 대하는 교수, 한국인 학생의 태도이다. 외국인 학생이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삼가야 한다. 유학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신뢰할수록 외국인 학생이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 학생 역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배려와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 VI. 참고문헌

### 1. 논문

- 강정(2022),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인 유학생의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김재운 외 6명(2021),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연구: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1, 한국HCI학회, 131~138쪽.
- 이미정(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국어 수업 방안 연구- 토론과 연계를 통한 ‘읽기’수업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21, 225-244쪽.
- 이수정(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 연구」, 『인문연구』 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1~120쪽.
- 전예은 외 4명(2012), 「외국인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89~109쪽.
- 전재은(2016),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8(3),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9~51쪽.
- 조민정·김성수(2017), 「자료와 전략을 고려한 읽기 수업 모형 탐색」, 『교양교육 연구』 11, 한국교양교육학회, 505~536쪽.
- 최성호 외 2명(2018), 「좋은 수업에 대한 외국인학생들의 인식과 경험 분석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6(2),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91~118쪽.
- 황성근(2018),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센터의 운영과 활용방안」, 『사고와 표현』 11(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137~160쪽.

### 2. 기타

- 교육부(2021.12.20), 「2021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90123> (2022.11.21.)
- 국민대학교 국제교류팀, 「부·모·학생 외국인특별전형 2023 모집요강」  
<https://iat.kookmin.ac.kr/admission/community/notice/516> (2022.11.23)
- 김선태(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외국인 유치확대를 위한「Study Korea 프로젝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쪽.  
<https://www.krivet.re.kr:8443/repository/handle/201303/2441> (2022.11.30.)
- 대학알리미, 「2022 외국학생 중도탈락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2022.11.23)
- 이대혁(2015.07.07.), 「교육부 “유학생 20만 유치” 목표 잡았지만...」,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7072090421475> (2022.11.30.)
- 이명아(2022.01.19.), 「20년 뒤 “수도권대·지방국립대만 생존”... 입학자원 43만명에서 28만명으로 급감」, 『대학지성 In&Out』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 (2022.11.30.)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https://www.studyinkorea.go.kr/ko/sub/college\\_info/certified\\_intro.do](https://www.studyinkorea.go.kr/ko/sub/college_info/certified_intro.do)  
(2022.11.23.)